

일본 최초 코로나19 mRNA 백신 공장 건설 중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일본 다이이치 산쿄(Daiichi Sankyo) 일본 최초 mRNA 백신 공장 건설 중**
 - 항체약물접합체(ADC)인 엔허투(Enhertu)를 통해 HER2 유방암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일본 다이이치 산쿄(Daiichi Sankyo)가 코로나19 mRNA 백신에서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음.
 - 일본 니케이 아시아(Nikkei Asia) 뉴스에 따르면, 다이이치산쿄 본사가 있는 동경에서 한시간 거리에 있는 Kitamoto에 소재한 다이이치 산쿄의 자회사인 다이이치 산쿄 바이오텍에 코로나19 mRNA 공장을 건설중에 있다고 보도함.
 - 다이이치 산쿄는 2023년 1월 일본 정부에 mRNA 코로나 백신 승인 신청을 한 상황으로 이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임.
- **다이이치산쿄 키타모토 공장은 일본 최초의 mRNA 코로나19 백신 공장으로 2024년까지 연간 2천만 도스의 생산 용량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2027년까지 추가 증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다이이치산쿄는 2022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인 DS-5670의 임상 1, 2, 3상의 결과에서 후보물질이 부스터로 제공되었을 때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중화항체를 증가시켰다고 밝힘.**
 - 이 임상은 먼저 모더나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5000명 이상이 참여한 임상으로 코로나19 오리지널 균주에 대응하여 개발된 것임. 다이이치 산쿄는 현재 오미크론 변이 균주 대응 부스터 백신 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며, 부스터가 아닌 처음부터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실제로 다이이치산쿄 mRNA 공장이 얼마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지는 일본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아울러, 이 mRNA 공장은 계절성 독감 백신과 같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양의 생산이 가능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대신 다른 백신의 생산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음.**
- **일본의 또 다른 제약기업인 시오노기(Shionogi)도 코로나19 재조합 단백질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대형 식품업체인 메이지 홀딩스(Meiji Holdings)의 자회사인 케이엠 바이오로직스(KM Biologics)도 불활성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금년 6월 승인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참고> 1. Japan's 1st plant for mRNA COVID vaccine to be built by Daiichi Sankyo, Nikkei Asia, 2023.2.6
2. With COVID vaccine on the way, Daiichi Sankyo builds Japan's first mRNA plant: report, Fierce Pharma, 2023.2.7.